

“함께하는 사회 우리가족 행복 돌보미”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사례집

“함께하는 사회 우리가족 행복 돌보미”

마음을 움직인 따뜻한 돌봄서비스
박희애 / 대전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이 최고예요
나르만다흐 / 충북괴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적
여정 / 서울동작구건강가정지원센터

엄마, 나는 할머니가 세 명이야. 정말 행복해!
박은정 / 광주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셋째 아이도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송미혜 / 강원원주시아이돌보미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선생님 덕분에 엄마는 공무원의 꿈을 실현하였습니다.
박지혜 / 전남화순온누리건강가정지원센터

참 좋은 인연
강영기 / 경기의정부건강가정지원센터

우리 하연이의 첫 번째 선생님
정경희 / 부산연제구건강가정지원센터

또 다른 가족 같은 아이돌보미 선생님
양승만 / 경북구미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선생님과 좋은 추억
최수영 / 전북무주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사례집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사례집



대상

06

마음을 움직인
따뜻한 돌봄서비스

박희애
/
대전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우수상

12

아이돌봄지원사업이
최고예요

나르만다흐
/
충북괴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6

기적

여 정
/
서울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22

엄마, 나는 할머니가
세 명이야.
정말 행복해!

박은정
/
광주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28

셋째 아이도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송미혜
/
강원원주시
아이돌보미지원센터



장려상

34

아이돌보미 선생님
덕분에 엄마는
공무원의 꿈을
실현하였습니다.

박지혜
/
전남화순
온누리가정지원센터



40

참 좋은 인연

강영기
/
경기의정부
건강가정지원센터



46

우리 하연이의
첫 번째 선생님

정경희
/
부산연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52

또 다른 가족 같은
아이돌보미 선생님

양승만
/
경북구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56

아이돌보미
선생님과의 좋은 추억

최수영
/
전북무주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마음을 움직인
따뜻한 돌봄서비스

박희애
/
대전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개구쟁이 원우는
건강하게 잘 있어요,
선생님! 보고 싶어요.”



마음을 움직인 따뜻한 돌봄서비스

박희애 / 대전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2014년 7월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아홉 살 큰아이는 학교에, 다섯 살 둘째는 유치원에 보내고 사무실로 출근했다. 그날 역시 특별한 걱정 없이 사무실에서 맡은 업무를 처리하고, 시간을 보니 어느덧 퇴근 무렵이었다. 오늘 저녁엔 무엇을 해먹을까 고민하며 일과를 정리하던 때였다.

“띠리리링, 띠리리링”

핸드폰 수신자에 ‘박00 돌봄 이모님’이라고 뜬다.

순간 엄마만이 알 수 있는 불길한 예감이 감돌았다.

“여보세요? 이모님 웬일이세요? 저 곧 퇴근할건데요.”

“어머님. 먼저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한숨소리) 원우는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병원으로 와주셨으면 합니다.”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지만, 놀라지 말라는 돌봄 선생님의 따뜻한 말과 원우는 괜찮다는 말을 애써 믿으며 두근거리는 심장을 누르고 수화기에 귀 기울였다.

“놀이터에서 잘 놀던 원우가 집으로 돌아오던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주저 앉고 숨을 쉬지 않더니 쓰러졌어요. 곧바로 119에 전화를 걸었고, 응급처

리를 하라는 대로 했더니 다시 숨을 쉬고 정신이 돌아오는 듯 해요. 방금 119 응급대원들이 도착해서 병원으로 이송중이에요.”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다급해진 목소리로 다시 전화기에 대고 물었다.

“선생님, 바로 출발할게요. 병원은 어디로 가게 되나요?”

“잠시만요.”

돌봄 선생님과 통화하던 전화기는 원우를 병원으로 옮기는 119 응급대원의 손으로 넘겨지는 듯했다. 응급대원은 먼저 나를 안심시키려는 듯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는 산소 호흡기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숨을 쉬고 회복이 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안전하게 오시기 바랍니다.”

“네, 네, 원우는 정말 괜찮은거죠? 지금 출발할게요. 어디로 가면 되나요?”

그 대원은 집에서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는 K병원 응급실로 이송중이라고 했다. 수화기를 들고 있던 나는 손 마디마디가 마비되고, 심장은 두근거림으로 터지는 것만 같았다. 잠시 후,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겠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이며 직원에게 다급한 사정을 설명하고 응급대원이 알려준 K병원으로 향했다. 퇴근시간 무렵이라 시내는 네비게이션이 추천해주는 길인데도 답답하게 막혔다. 빨간 신호등 앞에 정지해 있는 1분이 1년같이 길게 느껴졌다. 그리고 언제부터였는지 모를 뜨거운 눈물이 두 볼을 타고 흐르고 있었다.

원우는 배려심이 많고, 바르고 착한 아이다. 고집 세고 욕심 많은 형 밑에서 태어날 때부터 양보하는 것을 먼저 배운 아이다. 퇴근 시간이 다른 회사보다 30분 늦어 칼퇴근을 해도 늘 집에 가면 7시가 넘는다.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것은 둘째아이가 유치원에 입학할 때부터다. 정시반 아이

대상



들은 2시 30분, 3시면 모두 집에 가는데 맞벌이 부부들의 아이들은 보통 6시 이후에 엄마, 아빠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손을 잡고 집에 가게 된다. 나는 남들보다 퇴근이 늦어 돌봄 서비스를 5시 30분부터 2시간 정도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이용했다. 직장에서도 눈치 안보고 십분, 이십분 정도 더 일하고 나올 수 있는데다, 집에 일찍 오는 날이면 느긋하게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도 별 수 있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그렇게 평화롭게 6개월여 시간을 보냈다.

원우는 돌봄 선생님을 처음 만난 날부터 “이모, 이모” 하면서 곧잘 따랐다. 워낙 붙임성이 좋기도 했지만, 돌봄 선생님도 원우를 자신의 아들인 것 마냥 예뻐해 주셨다. 원우가 좋아하는 책도 매일매일 읽어주셨다. 다행이다 싶었다.

원우가 열경련을 일으킨 것은 돌이 지난 직후부터였다. 해마다 한번 씩 열이 심하게 오를 때 발작을 일으키면서 쓰러졌던 것 같다. 병원에서는 아이들에게 쉽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니 큰 걱정은 하지 말라며 매번 그냥 돌려보냈다. 그러나 이듬해 또 한 번 병원에서 경련을 일으켰고, 우리 부부는 점점 걱정이 되어 갔다.

그리고 이번이 세번째!

다른 아이들에 비해 열이 급하게 오르는 원우를 돌보기 위해서는 세심함이 가장 필요했다. 처음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때 이 점을 강조했고, 다행

돌봄 선생님도
원우를 자신의
아들인 것 마냥
예뻐해 주셨다.

히도 원우를 맡아주신 돌봄 선생님은 아이의 건강상태부터 체온 변화까지 세심하게 살피주셨다. 이번 응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돌봄 선생님은 냉철한 판단력으로 응급처리를 재빠르게 하셨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원우는 곤히 잠을 자고 있었다. 구토를 많이 했는지 옷에는 이물질이 묻어 있었다. 그 옆에서 돌봄 선생님은 원우의 손을 꼭 잡고 계셨다. 원우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 원장님도 연락을 받고 한걸음에 달려오셨고 119 응급대원과 담당 의사도 지켜보고 있었다. 그렇게 원우의 곁에는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 많이 계셨다.

아이가 아플 때 가장 힘들다는 직장맘에게 돌봄 선생님의 손길은 뼈까지 녹일 만큼 뜨겁고 따뜻한 위로로 전해졌다. 여러 가지 검사가 진행됐고, 단순성 열경련으로 판정이 났다. 아이는 곧 깨어났다. 아이를 보는 순간 돌봄 선생님과 나는 그만 버럭 눈물바다가 되었다. 그날 한참 늦은 시간까지 엄마의 마음으로 함께해주신 덕분에 아이는 그 뒤로 돌봄 선생님을 더 잘 따랐다.

그렇게 힘든 시기를 견디고 지금은 건강하게 유치원 생활을 잘 하고 있다. 아이가 숨을 멈추고 경기를 일으킬 때 잘 대처해주신 돌봄 선생님께 제대로 감사하다는 말도 전하지 못했다. 또한 대전건강가정지원센터 담당자가 원우의 상태를 묻는 전화도 잊지 않고 해왔다. 다시 한 번 가슴이 따뜻해졌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격언처럼, 그 여름에 도와주셨던 돌봄 선생님의 정성, 병원과 119 응급대원, 유치원 원장님, 대전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분들까지 한 분 한 분의 사랑과 정성이 있었기에 지금 원우는 놀이터에서, 집에서, 유치원에서 해맑게 뛰어놀고 있다. 그때 내 심장과 뼈를 녹였던 돌봄 선생님의 따뜻한 보살핌은 아직도 우리 가족의 가슴에 깊이 아로새겨져 있다.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점점 추워지는 겨울, 화롯불처럼 따뜻한 전화 한 통 드려야겠다.
“띠리리링, 띠리리링”

“여보세요? 혹시, 원우가 또 쓰러진 것은 아니죠?”(웃음)

“개구쟁이 원우는 건강하게 잘 있어요, 선생님! 보고 싶어요.”





아이돌봄지원 사업이 최고예요

나르만다흐
/
충북괴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적

여정
/
서울동작구건강가정지원센터

엄마, 나는 할머니가 세 명이야. 정말 행복해!

박은정
/
광주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셋째 아이도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송미혜
/
강원원주시아이돌보미지원센터

우수상

아이돌봄지원 사업이 최고예요

나르만다흐 / 충북괴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에서 온 이주 여성입니다.

지금 시골 농촌 마을에서 시어머니, 남편, 아이들 3명이랑 함께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운명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의 며느리 될 것을 상상하지도 못 했지만, 한국 남편 이랑 만나서 2004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몽골 부모님이 저를 정말 귀하게 키워 주셨습니다. 한국에 와서 고생이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랑 만나고 한국에 온지 1년 만에 한 국제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이랑 맞벌이 하면서 아이 3명을 낳아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의 일이 해외봉사활동이 많기때문에 저는 혼자 아이들 보면서 직장 다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주여성은 다른 사람들보다 취업의 문이 좁아 이 직장을 그만두면 다른 직장 찾기 어려울 것 같아서 아이 낳아도 6개월까지만 집에서 쉬고 계속 일만은 했습니다.

일을 계속하려면 아이들을 맡길 곳이 필요해서 주위 다른분들께 여쭙어보니 여성가족부 지원 아이돌봄 사업이 있다고 한번 신청해보라고 하셨습니다. 한국말이 서툰 저로서는 몇 번의 서류 발급이 어려워서 조금은 힘들었으나 좋은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을 소개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하는 엄마들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점이지만 직장생활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아이들이 아팠을 때입니다. 낮에는 유치원을 보내고, 유치원 시간 빠고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아이가 입원하면 밤에 병원에서 자고, 아침에 아이 돌봐주는 아이돌보미 선생님께 아이를 맡기고 직장을 갔습니다. 한번은 아이들 2명에다가 애기 아빠까지 뇌수막염으로 입원해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병원 두 곳을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때 아이돌봄 이용자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극복했는지 모릅니다. 힘들 때 마다, 필요할 때 마다 아이돌봄사업을 이용했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많이 아팠을 때 아침 9시를 기다리면서 급하게 이용했을 때도 많았습니다.



우수상

아이 돌봄 선생님들
한분 한분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속에서
감사한 마음이 우러납니다.

저는 아마도 이 사업 덕분에 셋째까지 낳을 수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어린 아이들 키우면서 일하고 사는 게 벅차고 힘들었는데, 계획되지 않는 셋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하루 하루 벌고 사는 우리 가족에게는 월세 집에서 이사하고 다니면서, 아이들 키우고, 또 아이 낳아야 하는 책임이 무거웠지만 저는 그때 머릿속에 아이돌봄사업을 이용해서라도 아이를 낳고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어린 아이들 3명 키우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해외에 1년 반 동안 출장 간 적도 있습니다. 저는 아이 3명을 보면서 직장을 다녔습니다. 이때도 밤에 갑자기 아이가 아프면 응급실을 이용했었습니다. 만약에 아이돌봄사업이 없었다면 저는 직장도 못 다녔을 것이고 힘들 때 마다 기대할 곳도 없었을 것입니다.

서울에 있었을 때, 시집이 시골이고, 친부모님들과 내 가족이 몽골에 있었기에 기댈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마다 부모 대신 친척 대신 우리 아이들을 친할머니 처럼 봐주셨던 아이 돌봄 선생님들 한분 한분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속에서 감사한 마음이 우러납니다.

지금으로부터 3-4년 전에 친아버지가 말기 간암으로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 입원하시고 1년간 치료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수술 받았을 때마다 우리는 아이들을 맡기고 병원에 갈수 있었습니다. 지금 아버님이 하늘나라로 떠났지만 그때 아버지와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함께 지낼 수 있는 기회를 이 사업이 저한테 선물했던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살다 시골에 이사했을 당시에 제일 걱정된 것이 바로 시골에 아이돌봄사업이 없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만큼 내 아이들을 키우는 삶에 이 사업이 중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시골에 왔어도 우리는 맛별이를 해야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시골에 이사오고 제일 먼저 알아본 일이 바로 아이돌봄사업이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괴산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위탁운영하고 있어 이주민으로서 좀 더 쉽게 아이돌봄 서비스를 상담 받고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하면서 가장 맘에 쏙쏙 들어온 부분이 아이돌봄사업이 있는 걸 알고 한순간에 마음이 정말 안심했습니다.

내 인생에 최고의 도움을 준 것입니다. 하늘이 노랗게 되었을 때 마다, 도망가고 싶을 만큼 힘들 때마다 내 친구가 되어 준 것은 바로 우리 아이를 본인 아이들 처럼 잘 봐주신 고마운 아이돌보미 선생님들 덕분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린 맛별이 하면서 이 사업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있었기에 저는 직장을 다닐 수 있고, 정말 힘들고 육아 우울증에 시달렸을 때 아이를 맡기고 나가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부모들과 아이들이 이 사업을 이용해서 저처럼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 만든 분들에게,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위해 힘쓰시는 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충북 괴산군 농촌 마을
나르만다흐 올림

기적

여 정 / 서울동작구건강가정지원센터

2011년은 나에게 슬프고 힘들었던 한 해였다. 유난히도 추웠던 그 해 1월, 폐암 투병을 하시던 친정엄마가 돌아가셨다. 셋째를 임신 중이던 나는 슬픈 장례식과 입덧까지 이겨내야 했었다. 그리고 늦게나마 공부하게 되어 너무너무 신이 나있었던 대학원을 휴학해야 했다.

힘든 일은 왜 연달아서 오는 걸까? 우리 부부가 운영하던 학원에 문제가 생겨서 봄에는 급히 이사를 해야 했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포장 이사를 할 수가 없어서 임신으로 배부른 나와 남편이 3일간 집을 포장해서 직접 이사를 해야 했다. 임신한 아내보다 몇 배나 더 힘쓴 착한 남편은 힘든 내색 없이 나를 위로해 주었지만 삶이 고단하게 느껴졌다.

임신 34주에 접어들 무렵, 강의를 하던 도중 양수가 터져서 병원 침대에 꼼짝도 없이 3일을 누워 있어야 했던 일도 지나가고 7월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셋째를 출산했다. 지방에서 맛별이를 하시는 시부모님도, 친정 식구들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기가 태어난지 두 달쯤 되었을 때 아기 바구니에 아기를 태우고 학원에서 다시 강의를 시작했다. 남편과 번갈아 가면서

학원 사무실에 있는 갓난아이를 돌봤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차가운 바닥에서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 것이 참으로 미안했다. 3학년, 7살이었던 첫째와 둘째도 밤늦게까지 엄마 아빠와 학원 교실에서 함께 했다.

육아 보조나 도움의 손길 전혀 없이 아이 둘을 길러온 나였지만 셋째까지 태어난 그 당시에는 버겁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게다가 의식주도 겨우 챙겨주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충분히 돌보아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마음도 생겼다. 다른 사람들은 친정 엄마가 딸 힘들다고 힘써 도와주던데, 돈이 많아서 돌보미 아주머니도 잘만 쓰던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나는 왜 슬픈일이 많이 일어날까? 우울한 마음이 커져가기만 했다.



우수상

삶의 힘들고
아찔한 순간에 우리가족의
따뜻한 손길이 되어 주시는
돌보미 선생님께
정말 감사했다.



그렇게 고단하고 힘겹던 나의 삶에 갑자기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다. 친한 동네분이 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던 것이다.. 한 번도 본적 없고 알지도 못하는 낯선 돌보미 선생님께 아이를 맡겨야 한다는 것이 한 편으로는 두렵고 걱정되기도 했지만,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건의도 할 수 있고 변경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듣고 당장 신청서류를 챙겨서 연계를 받았다.

모유수유 중이던 나는 젖을 충분히 먹이고 난 직후 돌보미 선생님께 아이를 인계하고 쏘살같이 학원에 가서 강의를 한 다음 4시간 정도가 지나 아기가 배고플 때쯤 전속력으로 달려서 아기에게 돌아왔다. 내 마음처럼 아기를 잘 돌봐주지 않을거라는 걱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걱정은 쓸데없는 기우였다. 아기는 돌보미 선생님 품에서 곧히 잠들어 있거나 방긋방긋 웃으며 잘 놀고 있었다. 춥고 불편한 학원 사무실에서 키워야 하는 미안함도 가지지 않아도 되었다. 돌보미 선생님이 3번 정도 바뀔 무렵 아기가 낮을 가리는 시기가 되니 지속적으로 한 분이 돌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컸는데 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그런 엄마들의 마음을 알았는지 한 분의 돌보미 선생님을 지속적으로 연계해줘서 아기의 정서적 안정감을 지원해주었다. 그렇게 태어난지 몇 달되지 않아 만났던 선생님을 3년이 넘게 인연을 지속하고 있다.

2012년 어느 날 첫째가 계속 배가 아프다고 했다. 소화제도 사주고 좀 쉬게도 했지만 아이는 점점 아파했다. 소아과가 문을 닫을 때쯤 아기를 업고 어린 둘째를 손잡고 아이 셋을 데리고 소아과로 향했다. 의사는 충수염이라며 당장 응급실을 찾으라고 조언해주었다. 남편은 강의가 밤10시는 되어야 끝나는데 아이 셋을 데리고 응급실에 가기가 너무 막막하여서 다음날 아침에 가면 안되냐고 묻는 무식한 엄마에게 의사는 큰일 난다며 절대 안된다고 하였다. ‘그래 맞아, 밤중에도 아이돌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지?’ 급하고 힘든 마음에 돌보미 선생님께 연락을 했더니 쾌히 둘째와 셋째를 돌봐주시러 와 주셨다. 그날 밤에 첫째는 응급실에 입원해서 나와 입원수속을 마치고 밤에 강의가 끝난 남편이 병원에 도착한 직후 나는 다시 아이들을 인계받으러 집으로 돌아왔다. 삶의 힘들고 아찔한 순간에 우리가족의 따뜻한 손길이 되어 주시는 돌보미 선생님께 정말 감사했다.

우수상

낙담하고 희망이 없었던
내 삶이 변했다.
이것은 "기적" 이다.

2012년 여름 대학원 복학을 위해 급히 젖을 뗐다. 젖떼는 기간에 힘들었는지 우리 아기가 며칠째 음식은 커녕 물도 마시지 못하는 장염에 걸렸다. 결국 탈수 증상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다. 아기가 설사를 하며 며칠간 안겨서 울고, 병원 침대에 눕히기만 해도 자지 러지게 울었다. 나는 아이가 가여우면서도 어깨가 빠질 것처럼 아팠다. 문병을 오신 김경자 선생님께서 아기에게 정성껏 흰죽을 먹여 주셨다. 그리고는 안되겠다며 병원에서 아기를 돌봐주신다고 하였다. 나는 미안하기도 고맙기도 하였지만 선생님의 강권에 못 이겨 집에 잠깐 가서 샤워도 하고, 눈도 잠깐 붙이고, 그동안 못 봤던 첫째와 둘째 얼굴도 보았다. 힘들게 살아야 하는 게 내 운명 같았는데 이런 호사를 누리게 되니 싶을 만큼 감격스러웠다. 이 세상에 어떤 누가 가족도 아닌데 나를 생각해 주고 힘든 것을 도와줄까... 아니 가족보다도 더 감사한 사람이 나에게 생겼다.

2013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돌봐주시는 돌보미 선생님 덕분에 나는 대학원을 졸업했다. 야간에도, 주말에도 언제든지 신청하면 아이를 돌봐주셨다.. 논문을 쓰며 감사의 글을 적는데 우리 아이를 돌봐주시는 돌보미 선생님께 감사의 글을 꼭 적고 싶었다. 내가 아이를 키우며 대학원도 다니고 직장일도 할 수 있는 것은 헌신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도와주는 남편과 친정엄마 보다도 내 꿈을 응원해주는 돌보미 선생님 덕분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논문이 나오는 날, 제일 먼저 돌보미 선생님께 헌사했다. 논문에 이름이 적혀 있어서 기쁘다는 선생님의 흐뭇한 얼굴이 소녀같이 예뻐졌다.

상담대학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상담선생님으로 취직하였다. 출퇴근 시간이나 회식과 야근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나는 행운아이다. 나보다도 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주시고 잘 돌봐주시는 돌보미 선생님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와 둘째 아들은 가끔씩 선생님께 천원씩 용돈을 받아서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사먹으며 행복해한다. 선생님은 외할머니의 정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느끼게 해주고 싶다고 하셨다. 우리 셋째는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자야' 라는 애칭을 부른다. 서로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내가 퇴근해도 나보고 '자야!' 라고 부르다가 '아니 엄마지' 한다. 그 사랑하는 느낌이 좋다.

내 삶의 중심에는 우리 돌보미 선생님이 계시다. 생각해 보면 도와주시는 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복지정책을 펴주시는 국가와 여성가족부 모두 내 삶의 조력자이고 감사할 대상이다.

3년 전 내 삶은 슬픔과 걱정이 뒤섞인 모습이었다. 지친 아이 셋 엄마... 하지만 지금은 누가 봐도 밝고 건강한 엄마이며 학교 선생님과 아이들의 인정을 받는 훌륭한 상담선생님이다. 낙담하고 희망이 없었던 내 삶이 변했다.

이것은 "기적"이다.

우수상

엄마,
나는 할머니가
세 명이야.
정말 행복해!

박은정 / 광주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엄마, 나는 할머니가 세 명이야. 정말 행복해!”

6살 된 아들이 요즘 자주하는 말이다.

둘째 딸 아이를 낳고 1년간의 휴직 후 일터에 복직한 나의 하루는 그야말로 전쟁이다.

퇴근시간이 다가오면 정시퇴근을 하기 위해 1분마다 눈은 시계를 보고 있고,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를 찾기 편하게 미리 슬리퍼로 갈아 신는다. 원거리 출·퇴근을 하다 보니 고속도로를 달려 헬레벌떡 도착해도 어린이집 풀찌 귀가는 늘 우리아이의 차지이다. 이제 겨우 15개월이 된 작은아이가 가방까지 매고 현관 앞 의자에 쪼그려 앉아 있다가

“엄마.....! 으아앙.....”하고 품에 파고든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린다.

나 때문에 어린이집 선생님의 퇴근까지 늦어지는 것 같아 눈치 보이고 미안하기도 해서 “안녕히 계세요.” 대신 “죄송합니다.”로 하원인사를 대신하는 것이 새삼스러울 게 없다. 둘째를 카시트에 앉히고 다시 첫째가 있는 유치원까지 가는 길은 퇴근길 차량들로 정체 돼있고, 겨우 도착해서도 어린 둘째를 차에 혼자 둘 수가 없어서 다시 아기띠로 안고 유치원 입구에 간다. 교무실 선생님들 사이에 앉아있는 아들이 나를 보고 뛰어나와 아까 어린이집에서 둘째가 했던 눈물의 모자상봉을 재현한다.

“엄마! 으아앙.....엄마 미워! 친구들은 모두 집에 갔는데 왜 나만 여기 있는거야. 엄마 미워.” 대성통곡하는 아이를 안아주며 “엄마가 미안해.”하고 다독여준다.

두 아이를 데리고 집에 오니 7시 30분. 씻기고 저녁해먹이고, 놀아달란 아이들의 말에

“엄마 지금 바쁘잖아. 니들끼리 놀아.”라는 짜증 섞인 대답만 던진 채 쉬지 않고 세탁기를 돌리며 설거지를 한다. 시계를 보니 10시가 되간다. 어째 너무 조용하다. 거실을 돌아보니 책과 장난감들이 널부러져 있고 아이들은 그대로 잠이 들어있다.

“불쌍한 내 새끼들.....드라마에 나오는 엄마들처럼 다정하게 책도 읽어주고 같이 놀아주고 싶었는데.....”자는 아이들을 보며 죄책감이 든다.

복직 후 두 달 동안 똑같은 매일이다. 맞벌이를 하며 나보다 더 늦은 귀가를 하는 남편에게 육아분담을 요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더 이상은 못 하겠단 생각이 든다. 친정은 저 멀리 시골이고, 시댁도 고속도로를 타고 가야하는 거리라서 양가에 도움을 바랄수도 없다. 아파트 주민들과 지인들을 상대로 돌봐주실 분을 수소문 해봐도 마땅한 사람이 없다.

그러던 중 사무실 언니의 도움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알게 되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언니의 아이들을 아이돌보미 선생님 덕분에 키웠다는 언니의 말을 듣고 바로 신청을 했다. 퇴근시간대에는 신청자가 많이 밀려 있어서 한 달을 기다린 끝에 돌보미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다. 아이들의 할머니가 아직 50대이셔서 그 보다 연세가 있으면 누굴봐도 할머니라고 부르는 아들이 뛰어가서

“할머니, 안녕하세요.”인사를 하고, 아직 어린 딸은 낮을 가려 빼꼼히 보기만 한다.

다음 날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도 아이들 하원시간이 되자 선생님과 아이들이 잘 만났을지 걱정이 된다.

우수상

아들은 신나서
얘기하는데
그 말을 듣고 있으니
가슴이 찡해졌다.

그때 문자메시지가 도착한다.

- 아이들 잘 만났습니다. 걱정 마세요.

짧은 두 줄과 함께 온, 아이들이 집 앞에서 놀고 있는 사진이 보인다. 누가 보면
왜 저러나 싶겠지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다. 안도의 한숨이 나온다.

- 고맙습니다. 집에 가서 뵈게요. 답장을 보낸다.

“○○씨 슬리퍼 안 신어? 6시야.”

퇴근시간이 됐는데도 구두를 신고 있는 나를 보고 동료가 얘기한다.

“저 오늘부터 차분히 가도돼요. 아이들 돌봐주시는 분이 오셨거든요.”

퇴근해서 집에 오니 아이들이 달려와 안긴다.

“엄마, 나도 오늘부터 친구들이랑 같이 유치원버스 탔다. 이제 나 혼자 안남아.
정말 좋아! 할머니가 나 데리러 오셨어. 우리아파트에 친구들도 많이 만나서 놀았
어.”

아들은 신나서 얘기하는데 그 말을 듣고 있으니 가슴이 찡해졌다.



인상 좋은 선생님이
웃으며 얘기해주시니
안심이 된다.

일하는 엄마라고 동네 친구 하나 제대로 사귀게 해주질 못했고, 하원 후
친구들과 뛰어놀게 해주지도 못한 게 내내 걸렸던 터라, 그동안 미안했던
시간들이 떠오른다.

아이들은 이미 선생님이 주신 저녁을 든든히 먹고 신나게 놀고 있었다.

“애들이 말도 잘 듣고 얌전해서 저도 좋네요.” 지구 1등 까불이인 아이들
인데 인상 좋은 선생님이 웃으며 얘기해주시니 안심이 된다.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고 벌써 선생님과 만난 지 1년이 넘었다.
선생님과 처음 만났을 때 5살인 아들은 한글을 잘 몰랐다. 걱정이 된다고
간혹 말씀하시더니 책과 연필을 사오셔서 짹짹이 아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셨다. 그림그리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을 위해 크레파스와 스케치북을 선
물로 주시고 그림을 그리면 칭찬을 해주신다. 자연 관찰책에 나온 메뚜기
를 보고 직접 보고 싶다고 한 아들의 말에, 비오는 저녁 페트병에 메뚜기
를 잡아다 주고 가셨다. 또래에 비해 덩치가 작은 아들은 자전거를 제대로
탈 줄 몰랐다. 그런데 어느 날 근무 중 문자메시지가 왔다.

- 준호가 이제 혼자서도 자전거를 잘 탑니다.

혼자서 자전거를 타면서 웃고 있는 아들의 사진을 보고 감격한 나는 눈
물이 났다. 집에 있는 자전거가 좀 크다고 하시며, 시청 자전거 무료대여
소에서 아들 키에 잘 맞게 빌려다가 매일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거였다.

우수상

"친정엄마가
아이들을 잘 돌봐주시니까
직장 다니기도 편하고
정말 좋겠어요."

"아니야! 우리 할머니야.
그쵸? 할머니이?"

퇴근길 엘리베이터에서

- 아이들이 어찌나 밝고 씩씩한지 정말 귀여워요. 친정엄마가 아이들을 잘 돌봐주시니까 직장 다니기도 편하고 정말 좋겠어요.

이웃 또래 애기엄마들이 하는 말이다. 친정엄마가 아니라는 말에 놀라는 건 다반사다. 아파트에 또래 아이들이 누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선생님 덕분에 아이들이 친구가 되고 그 아이들의 엄마들도 사귀게 돼서 토요일 오후면 이젠 자연스레 어울리기도 한다.

요즘은 퇴근해서 집에 가면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다. 작은방, 거실 등에 숨어서 선생님과 숨바꼭질을 하느라 웃음소리가 그치질 않는다. 선생님이 퇴근 하



실 때면 이제 말이 트인 작은 딸아이는 “할무이랑 같이 갈꼬야!” 하고 현관에 나가 신발을 신고 있다.

6살이 된 큰 아이는 “할머니, 차조심해요. 내일 또 만나요. 근데 우리 집에서 자고가면 안되요?”하고 선생님 품에서 떠나질 않는다.

“준호야, 선생님이라고 불러야지.”하고 내가 야단을 치면,
“아니야! 우리 할머니야. 그쵸? 할머니이?”라며 더 응석을 부린다.

어느새 동화책을 읽고, 그림 속에 할머니라며 선생님을 그려 넣고 ‘사랑해요’라고 쓰는 아들을 보면 우린 참 복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 슬리퍼 대신 힐을 신고 퇴근하고,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자장가를 불러줘도 9시가 채 안된 시계를 볼 때마다 감사함을 느낀다.

내 삶의 크고 작은 변화들을 가져온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 그리고 우리에게 와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수기를 쓴다.

- 선생님, 우리 집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계속 함께해주실거죠? ^^

우수상

셋째 아이도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송미혜 / 강원원주시아이돌보미지원센터

어린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모이면 종종 하는 말이 있다. 아이를 잘 돌봐 주시는 분을 만나는 건 행운 중에서도 가장 큰 천운이라고. 그렇게 보면 나는 정말 행복하게도 두 번에 천운을 경험한 셈이 된다. 첫 번째는 2009년 3월 나의 소중한 첫 아이를 사랑과 정성으로 돌봐주신 돌보미 선생님을 만난 것이고, 2012년 3월부터 지금까지 둘째 아이를 키워주신 돌보미 선생님을 만난 것이 그 두 번째 천운이다.

내가 처음으로 돌보미 센터와 인연을 맺은 것은 2009년 3월쯤이다. 당시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나는 학업과 동시에 아이의 양육은 전적으로 도맡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을 알게 되었고, 아이가 9개월이 될 무렵인 2009년 봄부터 돌보미 선생님과 행복한 시간이 시작되었다.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이 막 시작하는 초기 단계라 주변에서 이 사업에 대해 아는 분이 전혀 없었고, 시부모님이나 친정 부모님이 아닌 전혀 모르는 분에게 내 아이를 맡기는 것이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하지만 생후 9개월 밖에 안된 어린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전혀 내키지 않았던 터라, 나라에서 하는 사업이니 믿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다. 돌보미 선생님이 오신 첫 날, 낯선 선생님을 보고 경계하던 아이에게 먼저 다가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나와 헤어지는 것이 싫어 우는 아이를 성심껏 달래 주시는 선생님을 보고 나의 결정에 확신이 생겼고, 그렇게 시작된 첫 아이의 양육은 너무나 만족스러웠다. 가끔 아이와 놀이터에 나가면, 다른 또래 아이의 엄마들이 모두 한결 같이 우리 아이를 돌봐주시는 선생님이 아이의 외할머니 줄 알았더라며, 우리 아이를 정말 자신의 손자인양 지극정성으로 돌봐 주신다는 말을 종종 듣곤 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돌보미 선생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웠는지 모른다. 우리 아이가 24개월이 되던 어느 날, 미끄럼틀을 타려고 올라가다가 발을 잘못 헛디디 바닥으로 떨어질 뻔 했을 때, 선생님이 순간적으로 자신의 몸을 날려 아이를 받아낸 적이 있었다. 그 날 이후 몇 일 동안 선생님이 다리를 절뚝거리셨는데, 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동네 아주머니들을 통해 알게 되었다. 선생님은 전혀 내색하지 않으시고, 아픈 몸으로도 묵묵히 우리 아이를 돌봐주셨던 것이다.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우리 아이를 돌봐주신 선생님의 마음이 느껴져 그날

우수상

얼마나 올랐는지 모른다. 그렇게 첫째 아이는 돌보미 선생님과 3년이란 긴 시간을 함께 보냈고, 4세가 되던 해부터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었다. 물론 어린이집에 보내고 한 달 정도는 선생님이 매일매일 끝나는 시간에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와서 평소와 같이 간식도 챙겨주시고, 씻기고 낮잠도 재우고, 아이가 어린이집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고, 선생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아이는 어린이집에 잘 적응할 수 있었다.

2012년 2월에 태어난 둘째 아이 역시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돌보미 센터를 통해 소개 받은 돌보미 선생님에게 아이를 맡겼다. 아이에게겐 너무 미안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생후 3개월부터 아이를 선생님께 전적으로 맡겨야만 했고, 다행히 돌보미 지원 사업의 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영아 종일제’라는 새로운 서비스 덕분에 큰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장시간 맡길 수 있었다. 역시나 아이는 돌보미 선생님을 너무 좋아했고, 선생님도 역시 동네 주민들이 아이의 친할머니로 착각할 만큼 정말 정성껏 아이를 돌봐주셨다. 아이가 생후 6개월이 되던 여름에 돌보미 선생님의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우리 아이를 더 이상 돌봐주실 수 없을 때가 있었다. 그 후 여러 돌보미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를 돌봐주시러 오셨지만, 아이가 다른 선생님께는 전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고열과 설사 등으로 며칠 동안 아팠었다. 센터를 통해 아이의 상태를 전해 들으신 선생님께서는 너무나 고맙게도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우리 아이를 돌봐주러 오셨고, 아이가 다시 오신 선생님을 보고 해맑게 웃으며 반기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하다. 어떻게 보면 돌보미 선생님이 나와 아이 아빠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했고, 그래서 인지 아이는 선생님을 정말 좋아하고 잘 따른다. 요즘 우리 아이는 다양한 농촌체험과 숲 체험을 하러 다닌다. 학원과 같은 어떤 기관에 소속되어 다양한 체험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 바로 돌보미 선생님과 함께 하는 선생님표 체험학교이다. 우리 선생님의 집이 시내에서 약간 벗어난 외곽 시골마을이라 내가 가끔 아이를 선생님 집에 데려다 주곤 한다. 그런 날은 돌보미 선생님의 손을 꼭 잡고 시골 이곳 저곳 산책하며, 벼, 콩, 고추 등과 같은 농작물들이 자라는 모습이나 잠자리, 나비, 메뚜기와 같은 곤충도 직접 살펴볼 수 있어서 아이가 은근히 선생님 집에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눈치다. 주변에서 종종 아이의 행동발달이 포레 아이보다 좀 앞선다는 말을 한다. 나는 우리 아이

가 포레 아이들보다 말이나 상호 작용 등이 빠른 것이 모두 돌보미 선생님의 긍정적인 효과라고 확신한다. 자기만의 선생님과 함께 자기만의 공간에서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들이 아이의 말이나 사고를 더욱 향상되게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이제 3개월 후면, 둘째 아이도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한다. 물론, 어린이집에 적응하는 동안에는 돌보미 선생님의 보살핌이 좀 더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첫째 아이가 그랬던 것처럼 둘째 아이도 밝고 긍정적인 아이로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잘 지낼 것이다.

2009년 3월부터 지금까지도 소중한 내 아이들은 돌보미 선생님들의 사랑과 정성으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어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 내에서 양육하고자 했던 나의 바람은 이루어졌고,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자부한다. 우리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아껴주시는 선생님을 만나는 것은 어쩌면 행운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와 내 가족 또한 소중한 우리 아이를 돌봐주시는 선생님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행운이 좀 더 많이 찾아 올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아이를 지켜주시는 우리 선생님, 아이를 위해 감기 한 번 마음 놓고 걸릴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선생님의 마음을 헤아려, 나와 가족이 먼저 선생님을 소중히 생각한다면 선생님도 우리의 소중한 아이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신 돌보미 선생님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자부한다.



또 다른 가족 같은 아이돌보미 선생님

양승만
/
경북구미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선생님 덕분에
엄마는 공무원의 꿈을
실현하였습니다.

박지혜
/
전남화순온누리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선생님과 좋은 추억

최수영
/
전북무주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참 좋은 인연

강영기
/
경기의정부건강가정지원센터

우리 하연이의 첫 번째 선생님

정경희
/
부산연제구건강가정지원센터



장려상

아이 돌보미 선생님 덕분에 엄마는 공무원의 꿈을 실현하였습니다.

박지혜 / 전남화순온누리가정지원센터

생명과학 분야의 연구가 적성에 맞아 결혼 후에도 실험실에서 교수님의 연구를 도와 일을 해오던 중 첫째 아이를 낳고 시댁이 있는 전남 화순으로 이사하고 2년 후에는 둘째까지 낳아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육아를 도와 주시던 시어머니의 몸이 많이 쇠약해지시면서 사면초가에 몰려 늦은 시간까지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겨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역할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운 어린이집의 야간 보육에 너무 힘들어하는 애들에게 미안하여 맘이 무겁던 중 우연히 아이돌보미 서비스에 대해 알게 되어 둘째는 어린이집 끝나는 시간에 돌보미 선생님 덕으로, 큰 아이는 할머니 덕으로 그렇게 돌보미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너무나 좋은 선생님을 만나 둘째가 엄마보다 선생님을 더 잘 따르고 선생님께서도 늦둥이 자식처럼 잘 보살펴 주셔서 엄마와 함께 하는 주말에도 “오늘은 돌보미 선생님 집에 안가?”라고 묻기도 하는 막내의 해맑은 표정에서 얼마나 저희 아이에게 잘해주시는지 알 수 있었고 아이돌보미 서비스에 대한 고마움의 깊이를 더하게 되었습니다.

장려상

육아에 대해 한숨 돌리게 되면서 저와 애들 아빠는 가족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기로 결정하고 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저는 연구직 공무원, 아빠는 전기기능장을 취득하기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자랑스런 부모가 되고 싶었고 저와 남편 모두 적은 급여에다 안정적인 직장도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장해갈수록 그들의 미래를 위해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 냉정한 현실에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둘째가 두 돌을 지내고 세 살이 되던 2년 전쯤 본격적으로 직장맘이고 육아에 살림까지 하면서도 돌보미 선생님을 믿기에 공부할 여력이 생겼고 그때부터 큰 아이까지 같이 돌보미 선생님께 맡기고 낮엔 직장, 밤엔 도서관을 다니며 공부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히 염치도 없이 선생님께 아이들을 어린이집 끝나고부터 밤10시까지 맡겨도 내 아이처럼 너무나 잘해주는 선생님 덕분에 전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고, 어느덧 올 아이들은 마치 그 집의 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그럴만도 한 것이 주중엔 밤에, 토요일과 일요일엔 오후에 날마다 단 하루도 빠지 않고 자기 집인양 드나드니 올 아이들도 돌보미 선생님 집에 가는 것이 습관처럼 일상이 되어 가더라구요. 돌보미 선생

어느덧 올 아이들은
마치 그 집의
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님의 딸들인 누님들과도 잘 지내면서 주말엔 나들이도 함께 가고(사진첨부 1), 여름엔 시골에서 마음껏 뛰놀며 물놀이도 하고 특히 올 큰아이는 먹기만 하면 토해내서 손에도 대지 않았던 과일도 현장에서 싱싱하게 바로 따서 스스로 입 속에 넣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사진첨부 2). 물론 돌보미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베풀어주신 모든 것이 다 감사하지만 특히 올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맘속 깊이 감사와 존경심이 절로 우러났습니다. 이렇게 항상 올 아이들의 동심을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돌보미 선생님이 계셨기에 저는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꼭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야겠다는 다짐을 또 하고 또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 둘의 엄마가 일까지 하면서 단번에 어려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다는 것은 맘처럼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올해로 3년째 장기간 계속되는 공무원 준비생으로서의 생활은 저희 가족까지 지치게 만들기도 했지만 열정이 넘치시는 우리 돌보미 선생님께서는 되려 올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주제를 날마다 정해서 만들거나 기타 관심

장려상



거리로 흥미를 유도해 주셨고(사진첨부 3), 올 아이들도 엄청 도서관가서 공부하고 오라면서 자기들은 선생님 집에 가서 할 일이 많다고 저를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돌보미 선생님께서도 아이들과 함께 제게 더 용기를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아이들을 잘 가르쳐 주셔서 엄마는 공부해야 하는 사람이고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고 활동하는 그러니깐 엄마역할은 돌보미 선생님이라고 감히 아이들까지 그리 생각하도록 정말 전심을 다해 아이들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특히 저 시험보기 며칠 전에 받은 우리 아이들이 만들었다는 4절지 큰 도화지에 담긴 응원편지는 정말이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사진첨부 4). 올 아이들이 좋아하는 랍스터 집게로 콕 콕 정답만 잘 찍으라는 재치 넘치는 메시지와

함께 가을 낙엽을 찍어 만든 자연배경은 나름의 운치와 마음의 여유까지 더해 주었습니다. 이 기운을 받아 올해 시험이 좋은 결실로 잘 마무리되었고 이젠 며칠 후에 있을 면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아이들 아빠가 전기기능장 시험에 합격하고 올해 제가 공무원에 합격해서 내년엔 입학하는 우리 큰 아이에게 이젠 엄마로서 오로지 직장고 아이들 뒷바라지만 전념하면서 올 가족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아이돌보미 서비스라는 좋은 정책과 훌륭한 선생님 덕분입니다. 어린이집과 돌보미 서비스는 엄연히 다릅니다. 만약 이 돌보미 서비스가 없었다면 저는 공무원 시험공부를 해볼만한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이 나라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라는
좋은 정책과
훌륭한 선생님
덕분입니다.

살면서 받은 최고의 복지였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기에 저희는 육아에 대한 도움이 절실한 대단히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말 힘들게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5살이 되어 한참 활동적이고 유독 호기심이 강한 큰 아이를 부탁드릴 때 너무나 죄송했고 선생님께서도 다른 아이보다 우리 큰 아이 돌보기가 정말 힘드셨을 것입니다. 밤 10시에 선생님 댁으로 아이들을 찾으러 갈 때마다 파김치가 되어 계시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며 단 1초라도 빨리 아이들을 데려가 편히 쉬게 해드리고 싶었지만 선생님께서는 그날 있었던 일들을 상세하게 설명 해주시면서 육아 선배로서의 조언과 노하우를 전수해 주시다보면 어느새 추가로 20여분 정도의 시간이 훌쩍 지나버리기가 일수였고 저희는 감사함보다 죄송한 마음에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었는데 이런 감동사례 공모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여성가족부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러한 돌보미 서비스가 더 많이 활성화되어 이 사회를 지탱하는 기초인 가족이 먼저 우뚝 세워지고 그리하여 가정이 행복하고 건전한 사회가 확립되며 우리 사회의 미래 희망인 아이들도 많이 낳는 계기가 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려상



참 좋은 인연

강영기 / 경기의정부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 지원사업 및 아이돌보미 선생님들로 인하여 맞벌이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이들의 변화된 모습에 감사드리며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요즈음은 맞벌이 안하고는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직장 구하기도 힘들 뿐더러 직장에 들어간다고 한들 정년까지도 보장받기도 힘든 세상이며 월급은 그대로 인데 물가는 치솟고 많은 사교육비로 인하여 아이 하나 기르기도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저 또한 아직까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열심히 살면 하늘이 도와준다는 말을 아이돌봄 지원제도를 통해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첫 아이가 태어나자 산모도우미 제도가 생겨 도움을 받았고 아이가 조금 자라자 어린이집 무상보육이 시작되었으며 둘째를 임신하자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혜택인 고운맘 카드가 생겨났고 둘째가 태어나고 나서는 아이돌

봄 지원사업이 생겨났으며 첫 아이가 학교 갈 때가 다 되다니 방과 후 교실이 확대 되었습니다. 흔히 요즘 젊은이들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라고들 얘기하곤 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어려운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출산율도 최저인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알아보시면 여러 가지 출산 및 육아지원제도가 있으니 포기하지 말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경기도 의정부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인과 7살 딸 금비, 4살 아들 동건과 경제적으로 윤택하진 않지만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구미공단에서 일할 때 지인의 소개로 만나 6개월 만인 2007년 11월24일 결혼하였습니다. 결혼당시 저는 38살 부인은 36살이었습니다. 저는 경제적 사정으로, 부인은 뇌 병변 1급 장애인이신 아버지 병간호로 결혼이 늦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결혼 하자마자 아이가 생겼고 순산하여 예쁜 공주 금비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 다니던 회사가 최종 부도나고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08년 금비를 낳고 아이들 조부모님이 계시던 의정부로 이사와 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양육 지원을 받으며 맞벌이를 할 심산이었죠. 그러나 의정부엔 일자리가 많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활동적인 사람이었으나 아이가 어리니 직장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업급여로 근근히 버티며 저는 잠깐 백수생활을 하게 되었고 아이도 어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부부간의 불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인가는 저녁밥을 먹다가 부인이 '금비하고 나를 굶겨 죽이려고 결혼 했느냐?' 는 말에 정신이 번쩍 나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일단 의정부 시청 공공근로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의정부시 세무과에 배치 받게 되었고 변호판 영치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일을 시작하니 나태한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퇴근 후엔 바로 정보도서관으로 직행하여 자격증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한 덕



장려상



분에 보일러, 가스, 냉동 산업기사 등을 따게 되었고 롯데마트 기계실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성모병원 기계실에서 잠시 일하다가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 시험을 치러서 당당히 합격하여 지금은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부인도 딸인 금비가 18개월 되던 해 어린이집이 무상보육으로 바뀌면서 어린이집에 맡기고 웅진코웨이 코디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고 힘든 코디일은 그만두고 신한카드 모집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억척스럽게도 만삭의 몸으로 애 낳기 3일전까지 영업을 하러 다녔습니다. 끈기운동을 열심히 한 덕분인지 4.35kg 건강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둘째를 임신하고 달라진 건 고운 맘 카드가 나와서 임신, 출산비 지원혜택을 50만원 받았던 것입니다. 생활이 어려워 둘째는 100일 지나자 어린이집에 맡기고 부인은 돈 벌러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나 맛별이를 하다 보니 아이 보육에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월~금요일은 어린이집에 맡기면 되나 둘 다 불규칙한 근무로 인하여 토, 일요일, 평일

새벽, 저녁시간이 문제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이들을 잠깐 잠깐 봐주시던 아이들 조부모님마저 작년에 멀리 수원으로 이사 가 버리시고 나니 여기저기 지인 분들에게 돈을 주고 맡기곤 했으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육아 스트레스로 다크서클과 한숨이 깊어질 즈음 아이돌봄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의정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올해 720시간을 부여받아 정말로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 인터넷 사이트 신청시 어려움이 있었으나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문의하니 직원 분들이 세세하게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시어 큰 어려움이 없었으며 센터장님 및 직원 분들이 모두 친절이 응대하시어 신뢰가 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아이돌보미를 처음 신청한날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신입 선생님을 대동하고 나오셨습니다. 아이돌보미 선생님에 대한 기우도 잠깐 뿐 돌보미 선생님을 뵈는 순간 "아! 정말 좋은 제도로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밝은 얼굴에 온화하신 성품, 지덕을 겸비하신 자세와 아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찬 우리 돌보미 선생님은 독서지도, 종이접기, 식사지도, 예절지도, 운동지도까지 아이들 보육에 뭐하나 부족하신 게 없었습니다. 하루하루의 활동도 수첩에 적어주시고 수시로 카톡으로 알려주시니 믿고 일에 열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선생님께 고마운 건 부모의 부족한 사랑과 정성을 듬뿍 듬뿍 주시어 아이들의 정서에 정말 좋은 영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결 밝아지고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일

**"아! 정말 좋은 제도로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장려상

레로 부모가 맞벌이 하다 보니 7살, 4살의 아이들은 평소 TV시청과 스마트폰 동영상, 컴퓨터 게임이 낙이였습니다. 스마트 폰에 열중하고 있으면 뺏기도 어렵거니와 쏘아지는 울음과 땀방에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이 돌봄 지원센터에서 나오신 돌보미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아이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돌보미 선생님을 지도까지 하시는 종이접기의 달인이신 선생님은 다양한 종이 접기와 손재주로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더 이상 TV, 스마트폰, 게임 등이 아이들을 지배하게 놔두질 않습니다. 퇴근 후 집에 가면 7살 금비는 선생님이 가신 후에도 오늘 배운 것이라며 척척 종이접기를 해서 아빠에게 자랑스레 보여주고 4살 동건이는 핸드폰이 아닌 책을 읽어달라고 조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토록 책을 좋아하고 종이접기, 공작활동, 그림그리기 게다가 밝고 명랑한 아이들이란 것을 선생님을 만나기 전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아이들 미래까지
생각하며 부모보다 더한
사랑과 정성으로
아이들을 품어주시니...**



돌보미 선생님은 정말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정성껏 지도 보육하시어 아이들을 보물로 생각하며 훌륭한 인재로 자라나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자칫 맞벌이 가정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삐뚤어질 수 있는데 아이들 미래까지 생각하며 부모보다 더한 사랑과 정성으로 아이들을 품어주시니 육아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일에 열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니 기쁘기 한량이 없으며 우리 아이돌보미 선생님들과의 소중한 인연에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보석 같은 선생님들이 의정부시에 계신 것에 행복감을 느끼며 잘 지도 및 관리하시어 보내주신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도 늘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렇듯 좋은 제도인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널리 홍보해 주시고 더욱 더 확대하고 양질의 선생님을 육성하여 아이돌보미제도가 널리 자리 잡아 출산, 보육 걱정 없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원해봅니다.

장려상

우리 하연이의
첫 번째 선생님

정경희 / 부산연제구건강가정지원센터

해마다 사람들의 옷깃을 단단히 여미게 하는 찬 바람이 불 때면, 나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설렘다. 특히 작년 크리스마스 시즌은 내 생애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10개월 긴 임신기간 동안 지인들에게 선물 받은 아기의 옷을 옷장에서 몇 번이나 꺼내 부른 배에 대어보며, 크리스마スイ브가 출산 예정일인 우리 아기가 나올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강직성 척추염과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희귀성 난치병을 앓고 있는 나에게 임신과 출산은 아주 큰 모험이었다. 의사 선생님께서 임신은 몸이 많이 회복되고 나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당부하시는 바람에 나와 남편은 피임하며 조심하였고, 또 건강해 져서 꼭 아이를 갖기 위해 주사치료도 꾸준히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기가 생기게 된 것이다. 임신 사실을 의사선생님에게 알리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내가 받고 있는 주사치료가 태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임상

나 또한 지쳐
아이가 잘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

시험 결과가 없어 안정성을 예측할 수는 없으니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매우 신중하게 말씀하셨다. 그 후 나는 임신기간 동안 모든 약물치료를 중단하고 오직 아이의 건강만을 바라며 통증을 버텼다. 크리스마スイ브가 예정일이었지만 아기와 나의 안전을 위해 12월 16일 제왕절개로 출산하였다.

처음 아이를 키워보는 우리 부부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알아낼 수 없는 이유로 우는 신생아를 돌보는 일이란 정말 캄캄한 길을 불빛 하나 없이 맨땅을 걷는 느낌이었다. 다행히 친정어머니가 가까이 사셔서 육아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지만, 일흔이 훌쩍 넘은 노인네가 감당하기엔 체력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었던 모양이었다. 결국, 친정어머니는 지쳐 쓰러지셨고 장기 입원을 하게 되셨다. 산후 조리도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과 집을 오가며 모유 수유까지 하던 나 또한 지쳐 아이가 잘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 조현병을 앓고 계시는 시어머니에 이어 친정어머니의 치매 소식은 나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나는 엄마가 되었지만, 여전히 엄마가 필요했다. 나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이었다. 나에게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는 말이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미궁으로 나를



장려상

억지로 밀어 넣는 것 같이 느껴졌다. 아기가 태어나면 저절로 엄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도 함께 성장한다는 친정어머니의 말씀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다.

내가 직장에 나가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겨우 몸이 회복되신 친정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오후에 출근하는 남편의 도움으로 오전에는 남편이, 1시 이후에는 친정어머니가, 5시 이후에는 내가, 이렇게 3교대로 아이를 돌보기 시작했다. 친정어머니의 건강이 걱정되었지만, “괜찮다”는 친정어머니 말이 사실은 괜찮지 않은 것임을 알면서도, ‘엄마가 괜찮다고 하셨으니 괜찮으실 거야’하고 눈을 질끈 감고 직장 생활에 나날 수밖에 없었다. 불효가 따로 없었다. 육아와 일에 지친 남편과 나는 점점 다툼이 잦아졌고, 급기야 아이를 가운데 두고 큰 소리로 싸우기까지 했다. 출근 준비로 바쁜 시간에 아기를 남편에게 맡겼다가 소파에서 떨어뜨리는 바람에 아기 머리가 탁자에 부딪쳐 6개월 된 아기를 병원 신세까지 지게 만들었다. 절대 부모가 되면 하지 말자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 정신력만으로 일과 육아 그리고 몸의 병까지 이겨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마음은 늘 편하지 않았고 매일 쫓기듯 바빴고 답답하고 괴로웠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한 달에 기백만원이나 되는 베이비시터를 고용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할 일이었다. ‘아이 돌보미’ 제도를 알기 전까지는 말이다. 우리 집 근처에 혹시 시간이 넉넉하신 맘씨 좋은 이웃 아주머니 중에서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이와 함께 놀아주실 분 어디 없으실까? 하고 늘 생각하고 있던 차에 ‘아이 돌보미’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시 숨 쉴 수 있는 희망의 빛이 보이는 듯 했다.

‘연제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니 나도 ‘아이돌보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등록을 해주었다. 안타깝게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이 많지 않아서 바로 연결을 받을 수 없지만 신속하게 연결해주겠다고 친절히 응대해 주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다시 숨 쉴 수 있는
희망의 빛이
보이는 듯 했다.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센터에 전화를 걸었던 것 같다. ‘혹시 아직도 와주실 선생님 없으신가요?’ 좋은 제도가 있어도 예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사람에게 적절한 시기에 넉넉히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다는 불편함도 있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 전화한 탓인지 선생님 한 분이 우리 집에 오게 되었다. 처음 우리

장려상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우리 가족의 행복을 지원해주는 아이돌보미 제도

집에 방문해 주신 아이돌보미 선생님은 굉장히 친절하고 포근했다. 사시는 곳도 친절어머니 집 근처여서 바로 우리의 이웃이었다. 주변에 혹시 우리를 도와줄 이웃이 없을까 하고 늘 고민하고 찾았는데 ‘연제구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만나게 된 것이다. 사실 뉴스에서 보도되는 여러 불편한 사건들 때문에 걱정 반 기대 반이었는데 돌보미 선생님은 기대 이상으로 우리 하연이를 잘 대해주셨다.

돌보미 선생님이 한 손바닥에 하연이의 두발을 들고 ‘둥둥아~ 둥둥아~’하면서 둥둥이를 태워주면 하연이는 ‘까르르’ 하고 자지러지듯 웃어댔다. 하연이가 좋아하니 보는 나도 기분이 좋아졌다. 목소리도 좋으셔서 동요를 얼마나 잘 불러주시는지 선생님 오시는 시간이면 하연이의 웃음소리와 선생님의 노랫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하루는 하연이가 열이 38도 이상 올라서 새벽에 응급실에 다녀왔는데, 다음날 선생님이 오셨을 때 ‘선생님 우리 하연이가 아파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정말 극진하게 하연이를 돌봐주셨다. 갑자기 열이 날 때 아이 열을 내리려고 시원한 물에 담그면 큰일 난다며 미지근한 물에 수건을 적셔서 열이 내리도록 계속 몸을 닦아 주고 또 물을 자주 먹여주어야 한다고 알려주셨다. 돌보미 선생님은 우리 하연이 선생님이기도 했지만, 우리 부부에게는 육아를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이기도 했다. 친절어머니가 아파서 속상해하는 나에게 ‘나이 많으신 어머니도 마음은 아이 같으니 잘 돌봐드려야 한다.’며 친절하게 상담도 해주시고 또 아프신 친절어머니와 시간을 함께 보내라고 휴일에도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미리 말하면

와주신다고 말씀하셨다. 요즘은 매일 돌보미 선생님이 오실 시간이 되면 하연이는 현관문을 쳐다본다. 그리고 선생님이 오시면 좋아서 엉덩이를 들썩거린다. 아기는 순수해서 자기에게 잘 대해주고 또 진심으로 좋아해 주는 사람을 알아본다는데 다행히 우리 돌보미 선생님이 바로 그런 사람이신가 보다.

아기는 엄마가 키워야지! 일보다는 아기가 우선이지! 옛날에는 논매고 밭일하면서 아기 넷 다섯 키우면서도 다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속상하고 우울해진다.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 솔직히 어린 아기가 있는 현대 가정에서 일과 집안일을 함께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논매고 밭일하며 아이 넷 다섯 키우는 엄마들도 분명 말 못할 애환이 있었을 것이다. 어찌면 내 딸에게는 이런 고생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셨을 지도 모른다. 그 옛날 지척에 살며 공동으로 육아를 도와주던 삼촌, 고모 그리고 맘씨 좋은 이웃들도 이젠 찾아보기 힘들다. 핵가족화 개인주의화 된 요즘, 엄마는 강하다는 신화로 사회가 워킹맘을 너무 내몰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일과 가사일 그리고 병에 너무나 지쳤다. 나는 아직 완벽한 엄마가 아니고 엄마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우리 가족처럼 일하는 맞벌이 부부가 부모가 되는 데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나에게 좋은 이웃을 소개해준 ‘연제구건강가정지원센터’와 또 돌보미 선생님은 나와 우리 가족에게 정말 소중하고 감사한 존재들이다. 나는 늦게 퇴근하는 나를 위해 우리 하연이를 재워주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돌보미 선생님이 현관문을 닫을 때까지 고개 숙여 감사하다고 인사드린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맙고 또 고맙다.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우리 가족의 행복을 지원해주는 아이돌보미 제도와 우리 하연이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돌보미 선생님이 있어서 우리집은 오늘도 안전하고 평화롭다.

장려상

또 다른
가족 같은
아이돌보미
선생님

양승만 / 경북구미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며 13년차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특별할 것 없었던 제 일상과 결혼생활에 큰 변화가 일어난 건 첫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입니다. 육아나 살림에 대해 전혀 관심도 정보도 없던 내게 결혼하자마자 아기가 생기고, 또 출산과 육아를 하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첫아이를 키우면서 육아신청을 한 기간에 친정아버지께서 신장암으로 투병을 시작하셨습니다. 아이 하나 돌보는 것도 제대로 되지 않아 하루하루 찢찢매매면서 편찮으신 친정아버지의 간호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한심하기도 하고 우울함이 밀려왔습니다.

아이와 함께 즐거워 할 시간이 내겐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도하지 않게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임신에 대한 기쁨도 접어두고 친정아버지의 병원비를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기도 하고 우울함을 털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다시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큰 아이를 처음으로 어린이집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벅속에서 자라고 있는 둘째, 어린이집에 맡겨진 첫째, 매일 늦게 퇴근하여 힘들어하는 남편, 병환으로 힘드신 친정아버지, 그 친정아버지를 간호하느라 고생하시는 친정어머니... 제 주위에는 힘든 상황들로만 가득 찬 것 같아 보였고, 육아로 힘들다는 말조차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말이 너무 사치스럽게 느껴졌지만 혼자 견디기엔 너무 벅차고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워킹맘들도 느끼는 상황이지만, 정말 우리나라에서 워킹 맘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자주 아프기 시작하는 첫째를 병원에 데리고 간다고 조퇴를 낼 때에는 직장 상사의 눈치가 너무 보였고, 아픈 아기를 어린이집에 억지로 보낼 때 어린이집 선생님께도 너무 죄송하였으며, 무엇보다 내 아이에게 힘든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 죄책감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워킹 맘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장려상

아마 제가
평생 잊지 못 할거예요.
또 잊지 않을게요

그래도 시간은 흘러 만삭인 몸으로 직장생활, 가정생활, 친정아버지의 병간호 까지 이어나가고 있을 때, 저희 집 둘째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하나일 때와 또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몸조리도 하지 못한 채, 동생이 생겨서 힘들어하는 첫째를 안으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렸습니다. 육아에 누군가에게라도 도움을 받아봐야겠다는 절박함에 아파트에 공지를 넣어보기도 하고 여러 지인 분들에게 도움도 청했습니다. 그리하여 알게 된 것이 “아이돌봄지원사업”입니다.

바로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고, 구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 아이돌봄 선생님도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아이돌봄선생님은 정말 저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인 것만 같았습니다. 선생님이 오신 첫날,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긴 투병 끝에 하늘나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온 저에게 돌보미 선생님께서 해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던지,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약 1년 8개월 정도 지금 저희 두 아이를 너무나 잘 돌봐주

시고 계십니다. 어떨 때는 아이들이 아니라 제 자신이 돌봄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선생님과 저는 오늘 아이와 있었던 일과 직장에서의 일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대화를 하곤 합니다.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 말씀으로 삶의 지혜를 깨닫게 해 주셔서 돌봄 선생님이 아니라 저의 또 다른 친정어머니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가끔씩 뉴스에서 돌보미나 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 학대당하는 아이들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제 주위 사람들이 저에게 “하루 종일 아이가 남이랑 같이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지 않냐? CCTV를 설치하는 게 어떨겠냐?”며 걱정의 말들을 합니다. 그럴 땐 전 언제나 괜찮다고 합니다. 퇴근 후 돌아왔을 때 아이들의 얼굴에서, 아침에 돌보미 선생님을 맞이하는 아이들의 표정에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선생님의 눈빛을 보면 그런 걱정은 싹 사라지니까요.

지금 저희 첫째 아들 준모는 5세, 둘째 아들 준희는 26개월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내년 3월이 되면 둘째도 어린이집에 가게 되겠지요. 그래도 전 지금의 돌보미 선생님이 계속 저희 애들과 인연이 닿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저보다 먼저 인생을 살아오신 그 지혜를, 저에게도 또 저의 아이들에게도 계속 사랑으로 보여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육아로 힘들어하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워킹 맘들을 자주 봅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면 저는 아이돌봄지원사업 제도를 소개하는 전도사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연계되는 건은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제도가 더욱 잘 정착되어서 저같이 힘든 상황 속에서 일하는 워킹 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빌어봅니다.

이 제도의 수혜자인 제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두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계신 저의 또 다른 친정어머니인 돌보미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준모, 준희를 항상 사랑으로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제가 평생 잊지 못 할거예요. 또 잊지 않을게요.”

2014년 11월 8일 준모, 준희 엄마이며 대한민국의 평범한 여성 이혜정이 씁니다.

장려상

아이돌보미
선생님과
좋은 추억

최수영 / 전북무주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집에서는 세 아이의 어머니이자, 직장에서는 커리우먼으로 지치고,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오늘도 사랑하는 아이들의 함박웃음으로 아침을 시작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돌봄을 이용하고 있는 최수영이라고 합니다.

직장을 10년째 다니며 사랑스런 딸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자녀를 키우며, 직장을 다닌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육아와 가사 그리고 노동은 저를 힘들고 지치게만 하였습니다.

"왜 쌍둥이를 낳아 내가 이렇게 힘이 들까"



그리고 듣게 된 임신 소식...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에 기쁨도 잠시, 회사와 아직 어린 아이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나에게, 남편도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스키장에 근무하는 남편은 새벽에 일을 나가 새벽에 들어오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저 혼자 세 아이를 감당하기엔 너무 힘이 들것 같다는 생각에 육아휴직을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유난히 추웠던 어느 겨울 사랑하는 쌍둥이 딸이 태어났습니다. 기쁨도 잠시 저의 육아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제 1막 세 딸과 시작된 좌충우돌 육아전쟁

미운4살에서 더 미운 5살이 된 나의 딸과, 쌍둥이 딸은 나에게 기쁨과 행복, 좌절감과 피곤함을 동시에 선물해주었습니다.

세 아이를 돌본다는 것은 나에게 버거운 숙제였습니다.

나의 생활은 없어진지 오래였고, 큰딸도 쌍둥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과격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매일 지치고, 지치고, 지치기만 한 저는 바쁘기만 하고, 도와주지 않는 남편이 미워 매일 싸움을 반복되었고, "왜 쌍둥이를 낳아 내가 이렇게 힘이 들까" 생각하며 아이들, 남편과 함께 육아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려상

제 2막 새로운 만남

지치고 힘든 나에게도 희망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미리 아이돌보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100일은 넘어야 이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고민에 빠져있을 때, 엄마와 돌봄선생님이 같이 자녀를 돌보는 것이 가능하다는 특별히 생후 50일 즈음부터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까다로운 성격으로 낯선 사람과 한집에 있게 된다는 것에 걱정이 컸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정서 발달을 위하여 서비스를 이용해 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첫날 서먹서먹 한 것도 잠시...

하루, 이틀, 한 달이 지나고, 어느새 돌보미 선생님만 기다리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쌍둥이를 함께 안아주며 나를 이해해주는 단 한명의 사람, 제가 믿고 의지하며 마음을 여는 모습에 내 자신이 신기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선생님과 새로운 만남은 저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저보다 더욱 엄마같은
우리 선생님,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제 3막 아이돌봄서비스로 인한 안정된 나의 일상

쌍둥이를 돌보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는 나는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선생님이 미리미리 챙겨주셨습니다. 답답해하는 큰딸 데리고 외출도 같이 해주시고, 아픈 아이들 데리고 같이 병원도 가주시고, 친정엄마처럼 집에 있는 맛있는 음식들을 싸다주시고...

갑자기 받는 친정엄마 같은 사랑에 어색하기도 하였지만 감사하는 마음에 눈물도 흘렸습니다. 뒤집기를 하고, 앞기도 하고, 기고 첫 걸음마를 했을 때도 함께 기뻐하고 행복해 주셨던 나의 소중한 선생님. 함께여서 나의 삶은 더욱 안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년의 시간이 지나

회사를 복직하게 되었고, 아이들을 향한 걱정도 잠시 선생님의 배려와 사랑으로 전 걱정 없이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저보다 선생님을 엄마처럼 의지하였고, 선생님은 활동하는 사진들을 전송해주셨고, 회사에서는 보지 못한 아이들의 성장모습을 함께 공유하며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더욱 엄마같은 우리 선생님,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장려상

제 4막 만남과 헤어짐 그리고 그리움과 만남
 우리의 친정엄마 돌봄선생님이 이사를 가셨습니다.
 믿고 의지하는 나의 친정엄마...

선생님의 따뜻한 배려, 사랑은 아직도 아이들과 저의 마음
 속에 남아있습니다.

그 곳에서도 아이들을 걱정하는 우리 선생님 연락을 주셨
 고, 사진을 통하여 서로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주 통화
 와 문자를 통하여 성장과정과 함께 궁금한 것들을 알려주셨
 고, 아이들은 선생님을 그리워하며 매일 언제 오시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서로를 그리워하며 자주 왕래를 하였고, 지금은 저보다 선
 생님을 더욱 좋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이런 모습을 보
 고 참 좋은 인연이구나 싶습니다.

제 5막 감사합니다.

오늘 선생님이 휴대폰에 저장된 우리 딸들 사진을 보시고
 “애들이 참 많이 컸어요. 그 시절이 그림고 참 좋았어요.” 이
 런 문자를 보내주셔서 저도 추억에 잠겨 글을 씁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게 만들어 주신
 돌보미 선생님, 늘 감사드리며
 사랑합니다.

늘 가까이에서 큰 의지가 돼주고, 위로가 되어주셨던 우리 돌보미
 선생님. 전주로 이사가셔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돌보
 미를 또 하실 정도로 열정과 사랑이 가득하신 우리 돌보미 선생님.

정말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 곳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보내주셨던 사랑으로 더욱 멋진 아
 이돌보미가 되어주세요.

늘 자식처럼 아끼며 사랑해주시며 좋은 추억 많이 만드세요. 사랑
 합니다.

아이들을 친구처럼 편안하게 엄마처럼 포근하게 감싸주시고, 사랑
 하는 법을 알려주시고, 저는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게 만들어 주신 돌보미 선생님, 늘 감사드리며
 사랑합니다.

2014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사례집

발행일	2014년 12월
발행처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발행인	이은희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37(합정동 웰빙센터) 8층
전화	(02)3140-2200
팩스	(02)3140-2299
홈페이지	www.kihf.or.kr
인쇄처	플랜비디자인 (02)3461-4849
발간등록번호	2014-KIHF-062

※ 이 책의 저작권은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 사례집에 게재된 내용과 사진은 동의를 얻어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